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쿵쾅쿵쾅 풍물놀이 행복한 동자들

청도 청계사 혜봉 스님과 10명의 물레방아예술단

5월 19일 오후 4시 경북 청도군 매전면 초등학교 앞 하나 들썩 아이들이 12인승 봉고 차에는 오르면서 운전석에 있는 혜봉 스님에게 말을 건넨다. 키가 큰 진송이가 먼저 나타나고, 성갑이가 나타났다. 저기 트럭 뒤에 숨은 높은 개구쟁이 수연이다. 대현이는 한 번 여자친구랑 재잘 재잘 얘기중이다. 운동화 끈이 다 풀렸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 삼매에 빠졌다.

“대현아, 운동화 끈 매고 놀아라”, “저놈, 하이고~ 트럭 뒤에 숨었네?”, “종범이는?” “대현아 넌 피아노학원 갔다 와야지” 스님은 여기저기서 돌아오는 아이들 하나하나 챙기기 바쁘다.

“스님 정말 웃겨요” 우하하~

어느덧 봉고에는 아이들이 가득차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얘기하느라 봉고가 떠나갈 듯 소란스럽다.

“출발~”

경북 청도군에서 온 문자 쪽으로 가다가 나타나는 금곡리 마을 마을의 고향 청계사에는 이렇게 스님과 사내아이 10명이 살고 있다. 산과 계곡에 둘러싸인 아늑한 법당에는 ‘부처님 마음’이라는 현판이 눈에 띈다. 봉고가 경내로 들어가자 멍멍이 굶주림이 반갑다



풍물습사를 뽐내고 있는 청계사 아이들.

고 뛰어나고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걸려 있는 오색 연등이 반짝인다. 2층 공양간에서는 할머니(신도회장 김영자, 63)가 손을 흔들고 아이들을 반겼다.

아이들은 오자마자 공부방으로 가더니 책 가방을 던져놓고는 각자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중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들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쓰레기도 버리고 이것저것 잔 심부름도 거든다. 작은애들은 만화책을 보는가하면 카드놀이도 하고 공양간 할머니 옆을 졸졸 따라다니기도 한다.

스님 흥 좀보라고 살짝 물었더니 “응, 응...”하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스님 정말 웃겨요”라며 마구 웃는다. 스님이 잠깐 안보이면 모두들 스님을 찾아 난리가 난다. 그만큼 스님은 아이들에게 인기다.

스님과 가장 재미있을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스님과 야구하면 정말 재밌어요”라는 아이들. 스님은 여름이 되면 아이들과 야구도 하고 법당 옆 계곡에서 수영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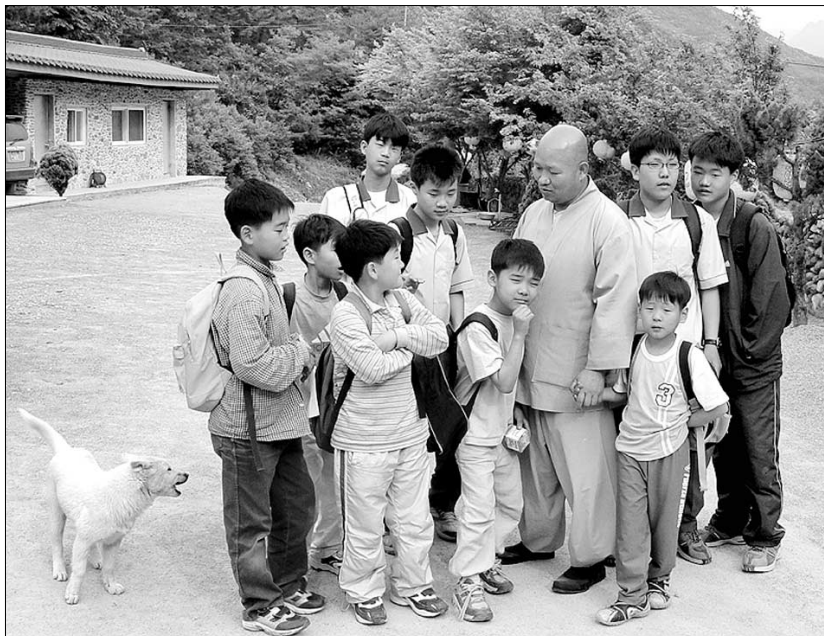
그러나 말을 안 들으면 가끔 스님은 호랑이로 돌변한다. 아이들을 야단칠 때는 아주 매섭고 따끔하다. “스님이 혼낼 때는요, 우리가 공부안하니까 그러지요” 아이들의 대답이 개구지다.

이곳 청계사에는 잘 정돈된 법당 앞마당을 가로질러 요사채가 있다. 요사채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스님방과 아이들 방 3칸이 마주해 있고, 아이들 공부방이 따로 마련돼 있다. 2층은 공양간이자 사무실이자 접견실 기능을 하는 다목적 공간이다.

사방이 책장으로 둘러싸인 스님 방엔 한국전래 문화, 사교력을 기르는 이야기, 웅진세계명작 등 스님 책 보다는 애들 책이 더 많다. 그리고 크레파스, 물감, 파레트 풀, 색종이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다.

스님은 무슨 사명감이 있어 아이들을 키우게 된 것이 아니라 취재를 거부했다. 단지 한 스님이 사내아이 하나를 데려와 거둬줄 곳을 찾았다는 말에 지나칠 수 없어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출가수행자가 오는 인연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오갈 데 없는 소외받은 인연이니 그냥 하나가 되어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수연군과의 인연이 시작되면서 어느덧 10명 사내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지금은 박수중, 김경현, 이진송, 강성갑군이 매전중학교 1학년에도 다니고 있고,



혜봉 스님이 청계사 앞마당에서 멍멍은 표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양근일군이 동산초등학교 6학년에도 재학중이다. 수연이는 5학년, 장대수는 4학년. 대현이와 광섭이는 3학년이다. 막내 종범이도 학교에 들어가 1학년 학생이 됐다.

“사실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애들과 놀아요.” 스님은 이 한마디가 전부다. 모든 것을 부처님의 뜻에 맡기고 사는 스님에게는 곳곳에서 부처님의 손길이 찾아와 아이들 성장을 돕는다. 부처님의 아이들

“해줄 건 없고 그냥 놀아요”

인 것이다. 울산학술연구소에서 주말마다 와서 ‘바라춤’을 가르쳐 주고, 마산 선유중흥연구소에서 풍물을 가르친다. 또 대구에 사는 가이금 선생 정순식씨는 가야금을, 신도회 재무 이은희씨는 서예를 가르친다고 나섰다. 신도회장 김영자씨는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이다. 매일 경산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와 청소며 빨래며, 간식과 반찬을 해주고 간다.

스님은 아이들에게 불교교리와 예법을 억지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받아들였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부처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켜볼 뿐이다. 다만 부모로부터 소외당한 마음의 상처를 후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일주일에 2번 모든 아이들에게 부모은중경을 가르친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곳은 살아있는 부처님 도량이다. 작년부터 배운 풍물은 이제 제법이어서 가끔 작은 연주회에 초대받기도 한다. 그래서 스님이 이름도 지어주었다. ‘물레방아 예술단’이라고. 물레방아란 씁쓸이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와 무상을 뜻한다는 것이다. 무상이란 늘 변한다는 의미라고.

1학년 종범이도 자기 명치만한 북을 꺼내 오는데 솜씨가 제법이다. 큰북이 자꾸 달아나지만 작은 손으로 꼭 움켜쥐고 형에게 뒤질새라 박자 하나 놓치지 법이 없다.

“광풍 파광풍!” 어느덧 송글송글 구슬땀이 맺히는가 싶더니 입가에 미소가 피어났다. 아이들은 소리로 하나가 되어 온 산을 찌렁찌렁 울리는 희열감에 젖어 들었다.

이번 초파일 계획을 묻자 스님은 빙그레 웃지만 한다. 작년엔 이곳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아주 인기였다. 그러나 올해는 정계사 아버지 스님과 물레방아 꼬마 예술단 10명은 초파일일 앞두고 이렇게 바람 같이 구름같이 하나가 되어 부처님 품에서 부처님 마음을 닦아가며 살고 있다.

배자선 기자 jsun@buddhapia.com



지금, 우리 곁에서...

서울 정법사

‘빼어난 경관’ 도심 속 휴식처



정법사는 지난 4월 천불을 모신 대웅전 중창불사를 마치고 낙성법회를 가졌다.

서울 성북구 성북 2동에 위치한 정법사. 정법사에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서울 한복판에 이런 사찰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도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단아하고 정갈한 모습이다. 주변 경관도 아름다워 ‘휴식처’ 같은 포근함이 느껴진다.



법진 스님

정법사가 이곳에 자리잡은 것은 1959년. 정법사는 원래 종로구 가회동에 있던 건봉사 서울포교당이었다. 현재 정법사 조실로 주석하고 있는 석산 스님이 염불만일회의 맥을 이어가 회포에 포교당을 개설했는데, 이곳 성북구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찰명도 정법사로 개명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지

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주지 법진 스님의 계획이다. 거사들과 청년들로 구성된 일요법회 활동도 눈여겨볼만하다. 정법사가 포교도량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일요법회의 활동이 큰 몫을 했다. 지역 특가 노인 지원을 비롯한 각종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수시로 화담회를 열어 지역 포교와 정법사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법사는 원래 종로구 가회동에 있던 건봉사 서울포교당이었다. 현재 정법사 조실로 주석하고 있는 석산 스님이 염불만일회의 맥을 이어가 회포에 포교당을 개설했는데, 이곳 성북구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찰명도 정법사로 개명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지

특이한 것은 거사들과 청년회원 대를 이어가 이곳 도도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그런 정법사가 최근에는 포교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4월, 3년여 동안 진행해 온 대웅전 중창불사를 회향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방과 극락전 건립불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불사에 매진하는 이유는 바로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다.

60평 규모의 대웅전은 전통적으로 조성됐다. 퇴락했던 대웅전이 새롭게 탈바꿈함에 따라 정법사는 면모를 일신했다. 대웅전 아래 건립될 선방은 정법사가 지향하고 있는 ‘열린 공간’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누구나 찾아와서 편안하게 정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화선, 염불선, 명상, 요가 등 시민들의 욕구

는 거사들과 청년회원 대를 이어가 이곳 도도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20~30년 함께 생활... 호흡 ‘척척’ 어린이법회 출신이라는 점이다. 20~30년을 함께 생활해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호흡이 척척 맞는다. 다른 신도들도 2~3대 동안 진행해 온 대웅전 중창불사를 회향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방과 극락전 건립불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불사에 매진하는 이유는 바로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다.

주지 법진 스님은 “정법사의 주인은 신도들이고, 나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며 모든 공을 신도들에게 돌린다. 이렇게 서로를 아끼는 속에서 정법사는 지금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대한불교진흥원 6월 1일~8월 31일 3개월간 | 불교문화센터 강의실 전편 개보수하여 새롭게 open 하였습니다.

불교문화센터 제4기 수강회원 모집

(6월 1일 개강)

불교교리강좌

아함경
지역 스님: 서울대 불교학부 지도보좌사
매주 수요일 10:30~12:00
50,000원(3개월)

참선 이야기(6월 10일 개강)
해가 스님/공강선원 원장
매주 목요일 10:30~12:00
50,000원(3개월)

불교의 중심사상
김종욱/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연구교수
매주 목요일 13:30~14:30
50,000원(3개월)

민화(民畵)그리기 / 초급, 중급

이영자: 민화가
초급: 매주 목요일 13:30~15:00
중급: 매주 목요일 10:00~12:30
60,000원(3개월) / 25명 정원제, 선착순

유 화
장동문: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연4회 특선
매주 화요일 10:00~13:00 90,000원(3개월)

서양화(누드)
장동문: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연4회 특선
매주 화요일 14:00~17:00 90,000원(3개월) / 오일료 별도

사군자
최형주: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위원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원역임
매주 금요일 10:00~12:00 80,000원(3개월)

위빠사나(명상/호흡)

강명화: 위빠사나 연구가
매주 화요일 10:30~12:00 50,000원(3개월)

불교강좌

단체(초급, 연구)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 단체부부 4명 한계)
· 정승화: 단정 강사
· 안두: 매주 금요일 10:00~12:00
· 초급: 매주 화요일 12:10~14:10
각 60,000원(3개월)

불화(佛畵)그리기
김익희: 불화가
매주 월요일 10:00~12:00 60,000원(3개월)

사 경
김경호: 전통 사경 연구가
매주 월요일 14:00~15:30 50,000원(3개월)

노래부르기교실

조성희: 문화센터 노래부르기 강사
매주 화요일 14:00~15:30 60,000원(3개월)

신설 - 스포츠 댄스
성수정: 스포츠댄스 강사/라틴 댄스
매주 금요일 11:00~12:30 80,000원(3개월)

생활역학강좌
이태권: 동재개원학회 이사/역학연구가
초급반 10:00~11:30 역학의 구성 / 기초
중급반 12:00~13:30 역학의 활용 / 2중반
고급반 13:30~15:00 역학의 심화 / 심화반
연구반 15:00~16:30 원리심화 및 연구활동
매주 목요일 / 25명 선착순 마감

연수반(연수 및 주재)
매주 수요일 13:30~15:00 70,000원(3개월)
교육내용: 사무용품 및 중형/ 주력과성용 표본/ 사무대인, 단역명

기문문법 / 초급·중급·고급
신영균: 기문문법연구가
기문문법(초급)매주 금요일 09:30~11:30
기문문법(중급)매주 금요일 11:30~13:30
기문문법(고급)매주 금요일 13:30~15:30
각 80,000원(3개월)

인상화
이은실: 인상화 연구가
매주 월요일 10:30~12:00 60,000원(3개월)

풍수지리
최도근: 건국대 평생교육원 강사
매주 월요일 13:30~15:00 60,000원(3개월)

직장인을 위한 영어회화

진우기: 문화센터 전임강사
매주 월·수요일 12:10~13:00
60,000원(3개월)

유아 어린이 강좌

임미와 함께 그림, 만들기(4~5세)
유아 그림, 만들기(6~7세)/2회 수업
유아 토요미술(5~7세)/2회 수업
초등미술(1~2학년)
초등미술(3~6학년)
유아연구동화교실
어린이영어교실
유아과학교실
어린이과학교실/1학년
어린이과학교실/2, 3학년
고학년 고교과학/4~6학년
독서와 글쓰기/1, 2, 3학년
독서와 논술/4, 5, 6학년
바이올린/초급, 중급

다보 법회

일 시 / 6월 2일(수) 오후 2시
법 사 / 김중욱 교수(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연구교수)

일 시 / 6월 16일(수) 오후 2시
법 사 / 송석구 교수(동국대학교 총장)

일 시 / 6월 23일(수) 오후 2시
법 사 / 혜당 스님(각화사 주지)

일 시 / 6월 30일(수) 오후 2시
법 사 / 지명 스님(법주사 주지)

관음제일 인도축원 기도법회

일 시 / 6월 11일(일) 음력 4월 24일 오전 7시

불교경전강좌

일 시 / 6월 9일(수) 오후 2시
강 사 / 임송택 박사(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주 제 / 안반수의경

불교진흥원 - 불교방송 법당 / 공개송 다보원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불교방송 3층)
문의전화: (02)703-0108 팩스: (02)3273-1618
www.dabo.or.kr

※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의환은행: 189-22-01147-4
에 급 주: (재) 대한불교진흥원